

조선조 음양과(陰陽科) 명과학(命課學)의 필수과목 『원천강(袁天綱)』 연구

김 만 태*

국문초록

『원천강』은 1430년(세종 12) 명과학의 취재(取才)과목으로 규정되고, 1466년(세조 12) 『경국대전』 「예진」에서 명과학의 과거(科擧)과목으로 규정되어 조선말까지 약 48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명과학 전공자들의 주요 본업서(本業書)이자 명과학의 필수 시험과목으로 활용되었다. 『원천강』은 그 저술시기와 저술자가 명확하지 않다. 책이름 『원천강』은 7세기 초중반 당대(唐代)에 방기가(方技家)로 활동했던 ‘원천강(袁天綱)’이란 인물의 이름과도 일치한다. 그러나 원천강의 이름에 가탁(假託)해서 펴낸 저술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본의 맨 처음 목록면에는 ‘宣賜之記, 安鼎福印, 心齋, 李王家圖書之章’라는 장서인이 찍혀 있다. ‘宣賜之記’는 임금이 하사하는 물품에 찍는 도장인 선사보(宣賜寶)이므로 임금의 명으로 『원천강』을 발행하여 관원들에게 하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원천강』의 본래 명칭은 『원천강오성삼명지남(袁天綱五星三命指南)』으로 서문과 발문이 없으며, 10권이고 발단류(發端類)부터 명격류(命格類)까지 15가지로 분류하여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원천강』에 함축된 명리 인식과 특징은 크게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① 납음오행(納音五行) 활용 ② 연월일시태(年月日時胎) 오주(五柱)체계 ③ 오행(五行)의 왕상사수휴(旺相死囚休) 중시와 12운성(運星) 활용 ④ 음양순행(陰陽順行) · 동생동사(同生同死) · 수도동궁(水土同宮) 관점 ⑤ 각종 신살(神殺), 12신살(神殺) · 귀인(貴人) · 녹신(祿神) · 관살(關殺) · 공망(空亡) 중시 등이다. 납음오행과 태원(胎元), 각종 다양한 귀길신(貴吉神)과 흉관살(凶關殺)을 지명(知命)에 중요하게 활용하는 고법(古法)명리의 전형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주제어] 음양과, 명과학, 원천강, 원천강오성삼명지남, 사주명리, 명리학

목 차

- | | |
|----------------------------|------------------------|
| I. 머리말 | IV. 『원천강』의 지명(知命)체계 특징 |
| II. 명과학의 시취(試取)와 『원천강』의 유래 | V. 맺음말 |
| III. 『원천강』의 구성과 주요 내용 | |

*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미래예측학과 교수 / ware4u@dongbang.ac.kr

I. 머리말

사람의 생년월일시를 간지(干支)로 치환한 후 그 상호관계를 해석하여 인간 삶의 길흉화복을 추론하는 예언체계인 사주명리가 오래전 중국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바와 같다. 하지만 그 시원(始原)을 자세히 알기는 어렵다.¹⁾ 현재로서는 사주명리의 기원은 4세기 초 무렵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동진(東晉)의 곽박(郭璞, 4C초), 당대(唐代)의 원천강(袁天綱, 7C초)과 이허중(李虛中, 9C초) 등에 의해 사주명리의 이론적 토대가 마련되었고, 오대(五代) 말에서 남송(南宋)에 걸쳐 서자평(徐子平, 10C중),²⁾ 서대승(徐大升, 13C중) 등을 통해서 현대 사주명리학의 체계가 거의 완성되었다고 본다.³⁾

한국에 사주명리가 어느 시기에 어떤 과정을 통해 전파되기 시작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사주명리가 체계화된 당대(唐代) 이후 중국과 인적·문화적 교류가 지속적으로 활발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남북국시대에서 고려 후기까지는 어떤 형태로든 당시 지식인들을 통해 한국으로 사주명리가 유입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의 전파 작용으로 늦어도 고려시대부터는 한국에도 사주명리가 유입·활용되어져 왔음은 여러 문헌 자료를 통해 짐작해볼 수가 있다.⁴⁾

고려 후기 무렵 지식층에서 널리 활용하고 있던 사주명리는 조선조에 이르러 술수 분야에서 새로운 시대를 이해할 수 있는 패러다임의 하나로서, 과거와 취재시험의 명과학을 통해 제도적으로 정착되어 조선조 내내 시행되어 왔다.⁵⁾

『원천강』 즉 『원천강오성삼명지남』은 여러 많은 명리서적들 중에서도 유일하게 조선조 음양과(陰陽科) 명과학의 주요 전공서이자 필수과목으로 조선조 내내 채택되었다. 하지만 서문이나 발문(跋文)이 없어 그 저술 시기와 저술자는 명확하지 않다.

조선조 음양과의 명과학에 대한 연구는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으나,⁶⁾ 명과학 전공자

- 1) 陳素庵(저), 韋千里선집, 『命理約言』, 香港: 上海印書館, 1987, 103쪽, 〈雜論 二十四則〉, “祿命之學, 不詳所自起.”
- 2) ‘오대 말 - 북송 초’로 알려진 서자평의 활동 연대와 관련하여 중화민국의 명리학자 추문요(鄒文耀)는 『자평명학고증(子平命學考證)』에서 1135~1146년간 ‘남송 초’로 보며(鄒文耀, 『子平命學考證』, 臺北: 瑞成書局, 1982, 108쪽), 장신지(張新智)도 이에 동의한다(張新智, 『子平學之理論研究』, 臺北: 國立政治大學 中國文學研究所 博士論文, 2002, 44쪽). 그러나 중국의 역사학자 유국충(劉國忠)은 송조(宋朝)의 각종 도서목록이나 사료(史料)뿐만 아니라 필기소설 중에서도 서자평에 관한 어떠한 기록을 찾을 수가 없으며 서자평의 송대(宋代) 존재 여부에 강한 의문을 제기한다(劉國忠, 『唐宋時期命理文獻初探』, 哈爾濱: 黑龍江人民出版社, 2009, 90~91쪽).
- 3) 김만태, 「조선 전기 이전 四柱命理의 유입 과정에 대한 고찰」, 『한국문화』 52,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0, 161~168쪽.
- 4) 예를 들면, 이제현(1287~1367)이 그의 장인 권보(1262~1346)를 위해 지은 碑文이 그의 문집 『익재난고』에 수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以中統三年仲冬十有一日將晡而生公, 壬子己未, 虛拱壬己之祿, 而互衝發之, 天機之妙如此.”라는 구절이 나온다. 이는 1253년 南宋의 徐大升이 저술한 『子平三命通變淵源』에 수록된 ‘拱祿’과 ‘拱祿格’의 설명을 응용한 것이다. 이런 사실을 미뤄볼 때 14세기 중엽 고려 말에는 관료·학자 등 지식인들이 사주명리에 관한 해박한 지식을 갖추고서 전문적으로 활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김만태, 앞의 논문, 175쪽.
- 5) 김만태, 앞의 논문, 185쪽; 김만태, 「조선조 命課學 試取書 『徐子平』에 관한 연구」, 『藏書閣』 28, 한국학중앙연구원, 2012, 268쪽.
- 6) 김만태의 「명리학의 한국적 수용 및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석사·2005)와 「한국 사주명리의 활용양상과 인식체계」(박사·2010), 이수동의 「조선시대 음양과에 관한 연구」(박사·2012), 구중희의 『한국명리학의 역사적 연구』(단행본·2013)

들의 주요 본업서이자 필수 시험과목이었던 『원천강(오성삼명지남)』은 그 중요성에 비하면 연구가 매우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천강』의 유래와 판본을 검토하고, 『원천강』의 구성과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원천강』에 함축되어 있는 지명(知命)체계, 즉 명리(命理) 인식과 특징들을 분석하여 향후 명리학의 관련 연구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

II. 명과학의 시취(試取)와 『원천강』의 유래

1. 명과학 시취와 『원천강』

본 논의에 앞서 조선조 음양과 명과학의 시취와 필수 시험과목이었던 『원천강』에 대해 먼저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조선 최초의 법전으로 1397년(태조 6) 12월에 편찬된 『경제육전』에는 서운관에서 천문(天文)·점산(占算)으로 시험하여 인재를 뽑는 법이 기재되어 있었으며⁸⁾ 천문(天文)·지리(地理)·성명(星命)·복과(卜課)를 총칭하여 음양학(陰陽學)이라 하였다. 그러나 1438년(세종 20)부터 지리에 관한 학문은 풍수학이라 칭하고, 역상과 일월성신에 관한 학문은 천문학이라 칭하게 되자 성명·복과에 관한 학문만 음양학이라 일컫게 되었다.⁹⁾ 그 후 1466년(세조 12)에 풍수학을 지리학으로 개칭하면서 음양학을 명과학으로 이름 바꾸었다.¹⁰⁾ 이에 따라 음양과(陰陽科)는 천문학·지리학·명과학으로 삼분되어 이후 조선조 내내 시행되었다.

명과학을 비롯한 음양과는 취재시험과 과거시험으로 구분되어 시행되었다. 고려시대와 달리 조선시대에는 과거시험이 초입사(初入仕)와 더불어 기성관료의 승진시험의 성격이 강하였다. 그러나 취재시험은 주로 초입 사직에 나아가기 위한 경로였다. 주부(종6품) 이상의 참서관으로 승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거시험을 거쳐야 한다는 『경국대전』 「이진」의 규정이 이런 사실을 잘 반영한다.¹¹⁾

명과학의 취재 시험과목은 1430년(세종 12)에 『주역집』·『육임집』·『성명서』·『대정삼천수』·『범위수』·『자미수』·『황극수』·『원천강(袁天綱)』·『오행정기』·『전정역수』·『응천가』·『오총구』·『삼신통재』·『난강망』·『관매수』 등으로 규정되어 시행되었다.¹²⁾ 그 후 1466년(세조 12) 『경국대전』 「예전」의 취재 항

등이 있다. 명과학의 시험교재인 시취서(試取書)에 관한 연구로는 김만태의 「조선조 命課學 試取書 『徐子平』에 관한 연구」(등재·2012), 이수동의 「조선시대 명과학 시험교재 『범위수』의 이론체계와 추명방식 고찰」(등재·2013)과 「조선말기 명과학 시험교재 『선택기요』 연구」(등재·2014) 등이 있다.

7) 조규문은 「천강 원수성의 명리사상에 관한 연구」(박사·2009)에서 『원천강』을 천강 원수성의 저술로 보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명리서 『원천강』은 원수성(천강)의 저술이 아니며 원수성(천강)의 이름에 가탁해서 퍼낸 저술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김인규의 「『원천강오성삼명지남』의 명리이론 연구: 五行發用과 貴神類를 중심으로」(석사·2013)는 『원천강』의 총 15류 중에서 제1 발단류와 제2 귀신류만을 부분 분석하였다.

8) 『世宗實錄』 卷35, 세종 9년 3월 辛卯.

9) 『世宗實錄』 卷83, 세종 20년 10월 癸酉.

10) 『世祖實錄』 卷38, 세조 12년 1월 戊午.

11) 『經國大典』, 「吏典」 京官職 正三品衙門 觀象監.

12) 『世宗實錄』 卷47, 세종 12년 3월 戊午.

목에서는 『원천강』은 배강(背講)하고, 『삼신통재』·『대정수』·『범위수』·『육임점』·『오행정기』·『극택통서』·『자미수』·『응천가』·『서자평』·『현여자평』·『난대묘선』·『성명총화』 등은 입문(臨文)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¹³⁾

〈표 1〉 명과학 취재 시험과목과 방법

규정시기	과목(방법)	취재 과목(방법)
1430년(세종 12)		주역점·육임점·성명서·대정삼천수·범위수·자미수·황극수· 원천강 ·오행정기·전정역수·응천가·오충구·삼신통재·난강망·관매수
경국대전 (1466, 세조 12)		원천강 (背講)/삼신통재·대정수·범위수·육임점·오행정기·극택통서·자미수·응천가·서자평·현여자평·난대묘선·성명총화(臨文)
1791년(정조 15)		협기변방·상길통서
1797년(정조 21)		협길통의· 원천강
1867년(고종 4)		선택기요· 원천강

명과학의 과거 시험과목은 1466년(세조 12)에 편찬된 『경국대전』 「예전」의 제과(諸科)항목에서 『원천강』은 배강하고 『서자평』·『응천가』·『범위수』·『극택통서』·『경국대전』 등은 입문하도록 규정하였다.¹⁴⁾ 1746년(영조 22) 『속대전』부터는 『원천강』은 배강에서 배송(背誦)하도록 변경하여 그 시험방법이 더욱 어려워졌다.¹⁵⁾

〈표 2〉 명과학 과거 시험방법과 과목

규정시기	시험방법	입문	배강	배송
경국대전(1466, 세조 12)		서자평·응천가·범위수·극택통서·경국대전	원천강	
속대전(1746, 영조 22)		서자평·응천가·범위수·시용통서·속대전		원천강
대전회통(1865, 고종 2)		협길통의·대전회통		원천강

13) 『經國大典』, 「禮典」 取才.

14) 『經國大典』, 「禮典」 諸科 陰陽科初試.

15) 명과학의 시험방법으로는 책을 읽고 글 뜻을 새기는 입문(臨文), 책을 보지 않고 글 뜻을 새기는 배강(背講), 책을 보지 않고 글을 외우는 배송(背誦)이 있었다. 따라서 입문보다는 배강이 어렵고, 배강보다는 배송이 어려웠다. 그러므로 전문서(본업서)는 배강으로, 꼭 읽어야 할 기본서(필독서)는 배송하게 하였다.

1791년(정조 15) 정조는 신실(神室)의 개수 작업을 할 때 택일을 잘못된 것을 계기로 지금 명과학의 소임은 국가의 길일(吉日)을 가리는 것이라면서 과거 과목은 법전에 실려 있는 것이므로 갑자기 바꿀 수 없지만 취재과목은 추명서(推命書)에서 택일서(擇日書)로 바꿀 것을 지시하였다.¹⁶⁾ 이런 변화 속에서도 『원천강』은 여러 많은 명리서적들 중에서도 유일하게 조선말까지 약 480년 동안 내내 음양과 명과학의 기본 전공과목이자 필수 시험과목으로 채택 활용되었다. 이는 조선조 음양과의 명과학에서 『원천강』의 위상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여실히 잘 보여준다.

2. 『원천강』의 유래와 판본 검토

책 이름인 『원천강』은 7세기 초중반 당대(唐代)에 방기(方技家)로 활동했던 ‘원천강(袁天綱)’이란 인물의 이름과도 일치한다. 원천강은 『구당서』 「열전」의 내용을 살펴볼 때 7세기 초에서 중기까지 수양제 · 당고조 · 당태종 간에 활동했던 인물이다. 이름은 수성(守成)이고 호는 천강(天綱)이다. 현재 사천성 지역인 익주의 성도 사람으로 상술(相術)에 뛰어났으며, 수나라 대업(大業, 605~616) 중에 자관령(資官令)이 되었으며, 당나라 무덕(武德, 618~626) 초에 촉(蜀)도사 침준적으로부터 화정령(火井令) 벼슬을 받았다고 한다.¹⁷⁾

원천강이 대업 원년(605)에 낙양으로 왔을 때 두엄(?~628) · 왕규 · 위정(590~647)의 상(相)을 봐주었는데 그의 말이 모두 맞았다. 대업 말 두궤의 상을 보고 장군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죽이니 스스로 삼가고 조심하라고 했는데 그대로 되었다. 무측천(624~705)이 어려서 강보에 싸여 있을 때 남자아이 옷을 입고 있었는데 원천강이 상을 보고서 “만약 여자라면 천하의 주인이 될 것이다.”고 했는데 정말로 상에 부합했다. 정관(貞觀) 8년(634) 당태종이 원천강의 명성을 듣고 그를 불러 중서사인(中書舍人) 잠문본, 시어사(侍御史) 장행성과 마주동, 신국공(申國公) 고사염의 상을 보게 하였는데 모두 맞았다는 내용이 『구당서』 「열전」 〈방기(方伎)〉 원천강(袁天綱) 항목에 실려 있다.¹⁸⁾

제주도 무속(巫俗)에서 불리어지는 본풀이에도 ‘원천강(袁天綱)’이 등장한다. 특수본풀이인 〈원천강본풀이〉에서 ‘원천강’은 사람의 운명이나 팔자를 점치는 내용을 적어 놓은 점술책(占術冊)을 의미하는 것으로 쓰인다. 일반신본풀이인 〈초공본풀이〉 · 〈세경본풀이〉 · 〈차사본풀이〉 등에서도 원천강이 나오는데, ‘원천강 스주역’, ‘원천강 화주역(畫周易)’, ‘원천강’ 등으로 표현되어 ‘원천강이 쓴 점술책’ 또는 ‘원천강이란 이름의 점술책’을 의미하는 것으로 쓰인다. 사주명리의 기원상 주요 인물인 당나라 때의 도사(道士) 원천강이 도대체 언제 어떤 경위로 제주도 무속에 유입되어 본풀이에서 점술책 · 점술가 · 사주팔자 · 화주역(당사주) 등을 의미하며 곳곳에서 불리지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규명하는 것도 앞으로의 과제이다.¹⁹⁾

원천강의 저술로는 『구천원녀육임과(九天元女六壬課)』 1권과 『귀천정격오행상서(貴賤定格五行相書)』 1권

16) 『正祖實錄』 卷33, 정조 15년 10월 戊辰.

17) 『舊唐書』 卷191, 「列傳」 141 〈方伎〉, “袁天綱益州成都人也. 尤工相術. 隋大業中爲資官令, 武德初蜀道使魯俊赤牒授火井令.”

18) 김만태, 앞의 논문, 2010, 182쪽, 각주 103.

19) 김만태, 『한국 사주명리의 활용양상과 인식체계』, 안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162~164쪽.

이 『영락대전』에 그 서명이 나온다.²⁰⁾ 명대(明代)의 명리학자 장남(張楠)은 『명리정중』 서문에 “이전에는 (명리에 관한) 서적이 없었는데 당대에 와서 원수성(袁守成)이 비로소 『지남오성서(指南五星書)』를 지었다.”²¹⁾ 라고 기록하였다. 그러나 『사고전서』를 비롯한 그 어디에도 천강 원수성의 저서목록에 『지남오성서』와 관련된 책 이름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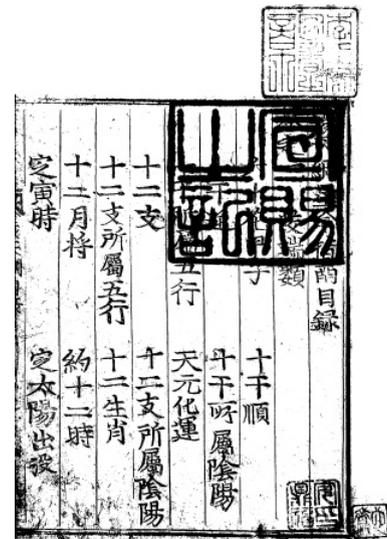
『속수사고전서(續修四庫全書)』 자부(子部) 술수류(術數類)에는 『신간지남대사원천강선생오성삼명대전(新刊指南臺司袁天綱先生五星三命大全)』 4권이 ‘從姑山人 校’ ‘驚峰世家 梓’ 판본으로 수록되어 있는데, 그 체제와 내용이 본 논문의 연구대상인 『원천강(오성삼명지남)』과 전혀 다르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장서각(藏書閣)에 14권 2책(乾·坤)의 목활자본 『袁天綱五星三命指南』이 소장되어 있다. 건(乾)책에 권1 발단류(發端類), 권2 귀신류(貴神類), 권3 합류(合類), 권4 인류(印類), 권5 관살류(關殺類), 권6 공망류(空亡類), 권7 시단류(詩斷類), 권8 관귀류(官貴類), 권9 행운류(行運類), 권10 명격류(命格類) 등이 수록되어 있고, 곤(坤)책에 권11 소식성신류(消息星辰類), 권12-13 정십이궁류(定十二宮類), 권14 죽라삼한류(竹羅三限類) 등이 수록되어 있다.

하지만 그 서문이 없어서 언제, 누가 지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 남송(南宋)의 진진손(陳振孫)이 당시 여러 장서가의 5만여 권의 책을 베껴서 분류하고, 저자·권수에 고증을 가해서 펴낸 『직재서록해제(直齋書錄解題)』에 『五星三命指南』 14권의 기록이 유일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저자가 누구인지 모르겠으며 서방(書坊)²²⁾에서 책을 팔아 영리를 취할 목적으로 속사(俗師)가 펴낸 것으로 여겨진다고 했다.²³⁾

『직재서록해제』에 기록된 『오성삼명지남』과 장서각에 소장된 『원천강오성삼명지남』은 서명과 권수가 일치하는 걸로 볼 때 두 책은 아마도 동일한 내용의 책이며, 본래 원천강의 이름에 가탁해서 펴낸, 명리학에 조예가 있는 어느 술수가의 저술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장서각 소장본 건책의 맨 처음 목록면에는 ‘宣賜之記, 安鼎福印, 心齋, 李王家圖書之章’라는 장서인(藏書印)이 찍혀 있다. 그리고 곤책의 맨 처음면에는 ‘安鼎福印, 李王家圖書之章’의 장서인이 찍혀 있다. ‘宣賜之記’는 임금이 하사하는 물품에 찍는 도장인 선사보(宣賜寶)이므로 임금의 명으로 『원천강』을 발행하여 관원들에게 하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 후기 역사학자·실학자인 안정복(安鼎福, 1721~1791)과 조선 말기 문신인 심재 이도재(李道



〈그림 1〉 『원천강』 목록
(장서각 소장본)

20) 『欽定四庫全書總目』 卷111, 「子部」 21 〈術數類存目〉 2.

21) 張楠, 2001, 『標點命理正宗』, 臺北: 武陵出版有限公司, 3쪽, “但先未有書, 至唐袁守成始作指南五星書.”

22) 책을 인쇄하여 파는 상업적인 민간서점.

23) 『直齋書錄解題』 卷12, 〈陰陽家類〉, “五星三命指南 十四卷: 亦不知名氏 大抵書坊售利求俗師爲之.”

率, 1848~1909)도 소장한 적이 있었고, 일제 강점기에는 이씨 왕가의 소장도서로 분류되었다.

서울대학교의 규장각에서 소장하고 있는 판본은 10권 1책이며 운각필서체자본(芸閣筆書體字本)²⁴⁾으로 방운서록(芳潤書麓)에서 간행하였다. 표제는 ‘袁天綱五星三命指南’이며 조선에서 간인된 판본이지만 서문이나 발문이 없어 정확한 간년이나 간행 동기는 알 수 없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판본은 10권 2책인데 원래 1책인 것을 근래에 도서관에서 상하 2책으로 나눈 것이다. 목판본으로 방운서록에서 간행하였다. 표제는 ‘袁天綱五星三命指南’이며 매권의 첫머리에 ‘방운서록수재(芳潤書麓繡梓)’라는 기문이 있다. 역시 조선에서 간인된 판본이지만 서문이나 발문이 없어 정확한 간년이나 간행 동기는 알 수 없다.

장서각 소장본의 건(乾)책과 규장각 소장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은 모두 각각 10권이며, 발단류부터 명격류까지 15가지 분류로 된 그 편제나 내용도 서로 일치한다. 1818년(순조 18) 성주덕(成周惠, 1759~?)이 편찬한 관상감의 관서지인 『서운관지』에는 『원천강』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원천강삼성삼명지남』 <10권>

당나라 원천강이 편찬했다. 발단(發端)·귀신(貴神)·식신(食神)·녹신(祿神) 등 15가지 분류로 나누었다. 본감에서 목판을 보관했다.²⁵⁾

관상감에서 보관하던 판본의 표제명도 ‘원천강삼성삼명지남’으로五星과 三星의 서명 차이만 있을 뿐 전체 10권이고 발단·귀신·식신·녹신 등 15가지로 분류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당시 관상감에서 보관하던 판본과 장서각 소장본(건책)과 규장각 소장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은 동일한 편제와 내용의 서책들이다.²⁶⁾

그러므로 조선조 명과학의 시취서로 활용된 『원천강』은 장서각 소장본을 기준으로 보면 건책(권1 발단류 - 권10 명격류)이고, 곤책(권11 소식성신류 - 권14 죽라삼한류)은 명과학 시취서가 아니라 별도의 학습서로만 활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곤책이 명과학의 시취서로 채택되지 않은 것은 곤책의 내용이 사주명리(四柱命理)가 아니라 고대 성상학(星象學)의 일종인 칠정사여(七政四餘)²⁷⁾에 관한 것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24) 운각(芸閣)은 조선 시대 경적(經籍)의 인쇄를 담당하던 교서관(校書館)의 별칭이다.

25) 成周惠, 『書雲觀志』 卷4, <書器>, “袁天綱三星三命指南 十卷: 唐袁天綱撰. 分發端·貴神·食神·祿神等十五類. 本監藏板.”

26) 장서각 소장본과 규장각 소장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은 서로 다른 판본이다. 이들 중 어느 것이 관상감에서 보관하던 판본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장서각 소장본을 위주로 참고하는데,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과 달리 沖을 衝, 克을 剋으로 표기하고 있다. 규장각 소장본은 卷1의 앞부분이 일부 떨어져 나간 낙장본이다.

27) 중국 고대 성명학(星命學)의 일종으로 사람의 생년월일시를 토대로 실성(實星)인 칠정(七政)의 일월오성(日月五星)과 허성(虛星)인 사여(四餘)의 월패(月孛)·나후(羅喉)·자기(紫氣)·계도(計都)를 12지(支)의 12궁(宮)에 각각 배치하여 본명(本命)을 비롯한 재백(財帛)·형제(兄弟)·전택(田宅)·남녀(子女)·노복(奴僕)·처첩(妻妾), 여자는 부서(夫婿)·질액(疾厄)·천이(遷移)·관록(官祿, 여자는 父母)·복덕(福德)·상모(相貌) 등의 길흉을 추론하는 것이다(張果(원지), 歐陽彥(지), 『果老星宗』(下部 七政四餘), 西安: 陝西師範大學出版社, 2010).

‘칠정사여’를 『원천강』 곤책에서는 칠정의 일월을 사여와 함하여 ‘오성육요(五星六曜)’라 했다. ‘칠정사여(오성육요)’는 당나라 현종(재위 712~756) 때 사람으로 도교(道敎) 팔선(八仙) 중의 한 명이라고 전해지는 장과(張果, 또는 張果老)가 저술했다는 『장과성종(張果星宗, 또는 果老星宗)』에 ‘삼신통제(三辰通載)’와 함께 수록되어 있다. 『장과성종(과로성종)』은 『고금도서집성(古今圖書集成)』 박물위편(博物彙編) 예술전(藝術典) 성명부(星命部)에 수록되어 있다. ‘삼신통제’는 명과학 취재 시험과목으로 『경국대전』에 규정되었다(〈표 1〉 참고).

Ⅲ. 『원천강』의 구성과 주요 내용

『원천강』에 함축된 지명(知命)체계의 특징을 분석하려면 먼저 『원천강』의 구성과 주요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 조선조 명과학 시취서로서 채택된 『원천강오성삼명지남』, 즉 『원천강』은 서문과 발문이 없으며, 발단류·귀신류·녹신류·식신류·합류·역마류·학당학관류·인류·재고류·관살류·공망류·시단류·관귀류·행운류·명격류 등 15가지로 분류하여 수록하고 있다.

제1 발단류(發端類)는 내용이 가장 많은데, 60갑자의 납음오행을 설명한 〈六十花甲子〉, 십간의 순역과 음양오행 배속을 설명한 〈十干順〉·〈十干逆〉·〈十干所屬陰陽〉·〈十干所屬五行〉, 십간의 오운합화(五運合化)를 설명한 〈十干天元化運〉,²⁸⁾ 십이지의 음양오행, 열두 동물, 열두 달 배속을 설명한 〈十二支所屬陰陽〉·〈十二支所屬五行〉·〈十二生肖〉·〈十二月將〉²⁹⁾ 등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12시진(時辰)³⁰⁾을 명명한 〈約十二時〉, 시계가 없던 옛날에 경점(更點)을 치는 소리³¹⁾와 날이 밝아 오는 것으로 寅時를 알아내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 〈定寅時〉, 寅월에서 시작하는 〈通月例〉, 子시에서 시작하는 〈通時例〉 등도 수록하였다. 〈五行納音〉에서는 金水木火土의 상생(相生)으로써 그 시조를 이루고, 水火金木土의 상극(相剋)으로써 그 종말을 이루는데, 복생(伏生)³²⁾이 홍범(洪範)오행을 잘못 전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고 하였다.

〈五行相生〉·〈五行相剋〉에서는 “나를 극하는 자는 관귀(官鬼)가 되고, 내가 극하는 자는 처재(妻財)가 되며, 나를 생하는 자는 부모가 되고, 내가 생하는 자는 자손이 되며, 견주어 같은 자는 형제가 된다.”³³⁾고 하였다. 〈五行發用〉을 비롯하여 〈四生〉〈四敗〉〈四臨官〉〈四旺〉〈四庫〉〈四絕〉 등에서는 장생·목욕(敗)·관대·임관·제왕·쇠·병·사·장庫·포絶·태·양의 12운성법(運星法)을 기술하였는데, “火는 寅에서 생하고 (...) 金은 巳에서 생하고 (...) 水土는 申에서 생하고 (...) 木은 亥에서 생하고 (...)”³⁴⁾라고 하였다.

60갑자의 각 납음오행이 생·왕·묘·임관, 패·병·사·절이 되거나 되지 않는 경우를 설명한 〈五行自生自旺例〉·〈五行自敗自絶例〉·〈五行不生不旺例〉·〈五行不败不絶例〉, 춘하추동 사시(四時)에 따른 각 오행의 왕상사수휴(旺相死囚休)를 설명한 〈五行旺相例〉³⁵⁾ 등도 수록하였다.

28) 『袁天綱五星三命指南』, 〈發端類〉, “甲己는 土로 운행하고 乙庚은 金이며, 丁壬은 木으로 化하여 모두 숲을 이룬다. 丙辛은 水로 운행하는데 청탁(淸濁)을 구분하며, 戊癸는 남방의 불꽃이 침노한다(甲己土運乙庚金, 丁壬化木盡成林. 丙辛水運分淸濁, 戊癸南方火焰侵).”

29) 장서각과 규장각 소장본은 ‘十二月將’으로 되어 있는데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은 ‘十二月建’으로 ‘將’을 ‘建’으로 고쳐서 수록하고 있다.

30) B.C.104 漢무제 때 太初曆을 제정하면서 그동안 시간대 명칭이 혼잡하였던 것을 바로 잡아 12時辰으로 구분하였다. 王力, 『中国古代文化常识』, 南京: 江苏教育出版社, 2005, 17~18쪽.

31) 하룻밤을 五更으로 나누고, 각 경을 다시 五點으로 나누어, 경을 알릴 때는 북을, 점을 알릴 때는 징을 쳤다.

32) 진(秦)나라 때 박사를 지낸 경학자로서 『今文尙書』 28편을 보존하여 전수했다.

33) 위의 책, 〈發端類〉, “克我者爲官鬼, 我克者爲妻財, 生我者爲父母, 我生者爲子孫, 比和者爲兄弟.”

34) 위의 책, 〈發端類〉, “火生寅(...) 金生巳(...) 水土生申(...) 木生亥(...).”

35) 위의 책, 〈發端類〉, “오행이 그 계절時를 만나면 왕이고, (계절이 오행을) 생하면 상, 극하면 사이며, (오행이 계절을) 생하면 휴, 극하면 수이다(五行當時者旺, 所生者相, 所克者死, 生我者休, 克我者囚).”

제2 귀신류(貴神類)는 〈裝五命〉에서 둔기인월(遁起寅月)·둔기자시(遁起子時)를 비롯한 사주(四柱)구성법, 태원(胎元)추산법, 명궁(命宮)추산법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는데, 甲子년 4월 戊申일 寅시생을 예로 들어 명궁 추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다.

가령 甲子년 4월 戊申일 寅시생이면 甲己는 丙寅에서 시작하니 4월은 己巳월이고, 또 戊癸는 壬子에서 시작하니 寅은 甲寅시가 된다. 四柱가 구성되면 수태(受胎)일이 어떤지를 보는데 그 법은 남녀를 불문하고 본래 生月 앞의 4位이다. 가령 己巳월이면 申위에 있는 (...) 즉 庚申이 胎元이다. (...) 年月日時胎가 五命이 된다. 五命이 구성되면 命宮이 어느 방위에 있는지를 보는데 그 법은 남녀를 불문하고 매번 子에서 正月이 시작된다. 거꾸로 세어서(逆數) 본래 생월에 이르면 곧 멈추고, 다시 본래 생월이 멈춘 곳을 따라 본래 生時를 차례대로 세어서(順數) 卯를 만나면 명궁이 된다. 가령 4월 寅시생이면 정월이 子에서 시작되므로 거꾸로 세면 2월은 亥, 3월은 戌, 4월은 酉이다. 酉에서 시작하여 본래 생시 寅을 차례대로 세면 卯는 戌에 있고 戌위에 바로 명궁이 온다. 본래 甲子년은 丙寅에서 시작하므로 戌에 이르면 곧 甲戌이 되니 甲戌이 바로 명궁이 된다.³⁶⁾

〈표 3〉 4월 寅時생의 命宮 추산 예

生月	1	2	3	4	5	6	7	8	9	10	11	12
逆數	子	亥	戌	酉	申	未	午	巳	辰	卯	寅	丑
順數				寅	卯							
順數				酉	戌							

〈五命〉에서는 예로 든 甲子년 4월 戊申일 寅시생의 오명에 납음오행을 붙여 甲子年金 己巳月木 戊申日土 甲寅時水 庚申胎木을 기술하였다. 천을귀인(天乙貴人)·삼기귀(三奇貴)·십간관귀(十干官貴) 등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는데 관귀는 정관(正官)을 의미한다.

제3 녹신류(祿神類)는 십간록(十干祿)·금여록(金輿祿)·천주록(天廚祿, 食神祿)·협록(夾祿)·공록(拱祿)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십간록에서 “丙戌의 祿은 巳이고 丁己는 午, 庚은 원숭이[猴]·申, 辛은 酉인데 서로 만나는 것을 기뻐하고, 壬은 돼지[豬]·亥, 癸는 子를 지나치게 서로 좋아하고 甲은 寅, 乙은 卯가 祿으로 가득 차고 풍성하다.”³⁷⁾고 하였다.

제4 식신류(食神類)는 십간식신(十干食神)·관귀식신(官貴食神)·연주식신(連珠食神)·녹마식신(祿馬食神)

36) 위의 책, 〈貴神類〉, “假如甲子年四月戊申日寅時生命, 甲己遁起丙寅, 至四月是己巳月, 又戊申日, 戊癸遁起壬子, 至寅是甲寅時. 四柱既成, 却看是何受胎 其法不問男女 以本生月前四位是 如己巳月即申上 (...) 即庚申是胎也. (...) 年月日時胎爲之五命. 五命既成, 却看如何方住命, 其法不問男女, 每從子上起正月. 逆數至本生月便住, 却從本生月住處起, 本生時順數逢卯爲命. 如四月寅時生命, 正月在子上起, 逆數二月亥, 三月戌, 四月酉. 於酉上起, 本生寅時順數, 卯在戌, 即戌上迫命也. 從本年甲子遁起丙寅, 至戌乃是甲戌, 即甲戌爲命.”

37) 위의 책, 〈祿神類〉, “丙戌祿巳丁己午, 庚猪癸子偏相樂, 甲寅乙卯祿盈豐.”

등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데, 십간식신에서 “甲人의 식신은 丙이고 乙人은 丁, 丙의 식신은 戊, 丁의 식신은 己, 己의 식신은 辛 위이고, 戊의 식신은 庚, 庚은 壬, 辛은 癸를 지나치게 서로 기뻐하고, 壬은 甲, 癸는 乙 이 가장 영광이다. 만약 식신이 녹마(祿馬)에 올라타면 반드시 부호가 되고 공명을 세운다.”³⁸⁾고 하였다. 녹마는 명리학의 십성(十星)에서 정관(正官)과 정재(正財)를 의미한다.

제5 합류(合類)는 지지삼합(地支三合: 寅午戌 · 巳酉丑 · 申子辰 · 亥卯未), 천간합(天干合: 甲己 · 乙庚 · 丙辛 · 丁壬 · 戊癸), 지지육합(地支六合: 子丑 · 寅亥 · 卯戌 · 辰酉 · 巳申 · 午未) 등을 열거하고, 월지삼합(月支三合)의 합화(合化)오행을 기준으로 하는 천덕(天德)과 월덕(月德) · 월합(月合) · 월공(月空)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천덕은 사맹월(四孟月: 寅申巳亥)은 월지삼합의 합화오행의 음간(陰干), 사중월(四仲月: 子午卯酉)은 월지삼합의 합화오행의 절지(絕支) 또는 삼합 끝 자의 다음 지지(地支), 사계월(四季月: 辰戌丑未)은 월지삼합의 합화오행의 양간(陽干)이 된다.³⁹⁾ 월덕은 월지삼합의 합화오행이 천간에 투출하는 것이고, 월합은 월덕과 천간합이 되는 것이고, 월공은 월덕과 방위상 180° 서로 마주보며 상충(相衝, 對沖)하는 것이다.

〈표 4〉 천덕 · 월덕 · 월합 · 월공

月支 三合	寅	午	戌	巳	酉	丑	申	子	辰	亥	卯	未
天德	丁	亥	丙	辛	寅	庚	癸	巳	壬	乙	申	甲
月德	丙	丙	丙	庚	庚	庚	壬	壬	壬	甲	甲	甲
月合	辛	辛	辛	乙	乙	乙	丁	丁	丁	己	己	己
月空	壬	壬	壬	甲	甲	甲	丙	丙	丙	庚	庚	庚

제6 역마류(驛馬類)는 “역마는 장생(長生) · 임관(臨官) · 녹귀(祿貴)를 기뻐하고 공망(空亡) · 병(病) · 절(絕) · 고허(孤虛)를 꺼린다. 申子辰의 역마는 寅, 寅午戌의 역마는 申, 亥卯未의 역마는 巳, 巳酉丑의 역마는 亥이다.”⁴⁰⁾고 하였다. 명위마(名位馬, 食神馬) · 생성마(生成馬) · 화개(華蓋) · 장성(將星) 등에 대해서도 기술하였고, 역마로부터 차례대로 육해 · 화개 · 겁살 · 재살 · 천살 · 地殺 · 연살 · 월살 · 망신 · 장성 · 반안 등이 되는 12신살(神殺)도 설명하였다.

제7 학당학관류(學堂學館類)는 납음학당(納音學堂) · 십간학당(十干學堂) · 십간학관(十干學館) 등에 대해서 기술하였는데, 연간(年干)을 비롯한 천간의 장생(長生)은 학당이 되고 건록(建祿)은 학관이 된다. 납음학당에 대해 “金人이 巳를 보고 辛巳(金)가 표준이 된다. 木人이 亥를 보고 己亥(木)가 표준이 된다. 水人이 申

38) 위의 책, 〈食神類〉, “甲人食丙乙人丁, 丙食戊兮丁食己, 己食辛上戊食庚, 庚壬辛癸偏相喜, 壬甲癸乙最光榮. 若遇食神騎祿馬, 必居豪富立功名.”

39) 위의 책, 〈合類〉, “正丁二坤宮, 三壬四辛同, 五乾六甲上, 七癸八艮逢, 九丙十居乙, 子巽丑庚中.”

40) 위의 책, 〈驛馬類〉, “驛馬喜長生臨官祿貴, 忌空亡病絕孤虛. 申子辰馬居寅, 寅午戌馬居申, 亥卯未馬居巳, 巳酉丑馬居亥.”

을 보고 甲申(水)이 표준이 된다. 土人이 申을 보고 戊申(土)이 표준이 된다. 火人이 寅을 보고 丙寅이 표준이 된다.”⁴¹⁾고 하였다. 즉 납음학당은 같은 납음오행의 간지(干支)이면서 그 지지(地支)가 납음오행의 장생이다.

제8 인류(印類)는 오행정인(五行正印)·협귀인(夾貴印)·화개인(華蓋印)·관귀인(官貴印) 등을 기술하였는데, 오행정인에서 “금이 乙丑(金)을 만나고 水는 壬辰(水), 木命은 癸未(木)만큼 친한 것이 없다. 土는 丙辰(土)이고 火는 甲戌(火)이면 금두(金斗)를 허리에 두르고 천자(天子)를 배알하려 간다.”⁴²⁾ 다만 “공망(空亡)이면 무당(師巫)이 되고, 충(衝)하면 승려나 도사가 된다.”⁴³⁾고 하였다. 오행정인은 같은 납음오행의 간지이면서 그 지지가 납음오행의 묘고(墓庫)인 경우를 말한다.

제9 재고류(財庫類)는 납음오묘(納音五墓)·오명재고(五命財庫)·비재(飛財)·외재(外財) 등을 설명하였는데, 오명재고에서 “金命은 木이 財이고 未는 庫가 된다. 木命은 土가 財이고 辰은 庫가 된다. 水命은 火가 財이고 戌은 庫가 된다. 火命은 金이 財이고 丑은 庫가 된다. 土命은 水가 財이고 辰은 庫가 된다.”⁴⁴⁾고 하였다.

제10 관살류(關殺類)는 사계관(四季關)·급각관(急脚關)·귀문관(鬼門關)·삼형(三刑)·대모살(大耗殺, 元辰)·반복음(返伏吟)·도화살(桃花殺, 咸池)·고신과수살(孤辰寡宿殺)·양인살(羊刃殺)·백호살(白虎殺)·격각살(隔角殺)·천라지망살(天羅地網殺)·현침살(懸針殺) 등 각종 관살(關殺)을 기술하였는데, 대표적으로 사계관에 대해 “봄의 관살은 丑(丑)와 巳(巳)이고, 여름은 辰(辰)과 申(申)이 나서 탄식하고, 가을은 亥(亥)와 未(未)이 두렵고, 겨울은 戌(戌)과 寅(寅)이 서로 온다. 두 자리를 모두 범하는 걸 꺼리는데 다만 한 자리는 관(關)이 되지 않으며 일명 양두관폐(兩頭關閉)이다.”⁴⁵⁾고 하였다.

제11 공망류(空亡類)는 육갑공망(六甲空亡)·십간공망(十干空亡)·호환공망(互換空亡)·절로공망(截路空亡)·십대공망(十大空亡)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육갑공망은 천중살(天中殺)이라고도 하는데 “甲子순 중에는 戌(戌)이 없고, 甲戌순 중에는 申(申)이 없고, 甲申순 중에는 午(午)가 없고 甲午순 중에는 辰(辰)이 없고, 甲辰순 중에는 寅(寅)이 없고 甲寅순 중에는 子(子)가 없다.”⁴⁶⁾고 하였다.

제12 시단류(詩斷類)는 명(命)의 길흉을 앞에 있어서 먼저 대세(大勢)와 격국(格局)이 어떠한지를 살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12신살(神殺)과 12운성(運星)에 대해서도 7언 절구로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대체로 간명(看命)은 먼저 대세(大勢)와 격국(格局)이 어떠한지를 보는데 입격(入格)한 명(命)은 장수와 같고 형살(刑殺)은 병졸과 같아서 지시하여 시키고 꾸짖으면 오로지 명에 따르게 된다. (...) 이제 제가(諸家)의 오행에 대한 길흉화복의 판단을 찾아내어 시결(詩訣) 2백여 수를 모아서 두 권에 배열하

41) 위의 책, 《學堂學館類》, “金人見巳辛巳爲正。木人見亥己亥爲正。水人見甲申甲申爲正。土人見甲申甲申爲正。火人見寅丙寅爲正。”

42) 위의 책, 《印類》, “金逢乙丑水壬辰, 木命無如癸未親。土丙辰兮火甲戌, 腰懸金斗去朝天。”

43) 위의 책, 《印類》, “空則爲師巫, 冲則爲僧道。”

44) 위의 책, 《財庫類》, “金命木財未爲庫。木命土財辰爲庫。水命火財戌爲庫。火命金財丑爲庫。土命水財辰爲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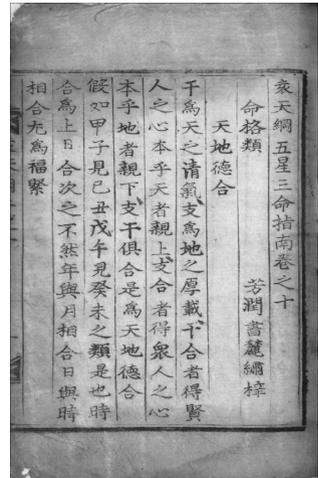
45) 위의 책, 《關殺類》, “春關牛與蛇。夏生龍猴嗟。秋怕猪羊位。冬犬虎交加。忌兩位全犯, 如只一位不爲關, 一名兩頭關閉是也。”

46) 위의 책, 《空亡類》, “甲子句中無戌亥, 甲戌句中無申酉, 甲申句中無午未, 甲午句中無辰巳, 甲辰句中無寅卯, 甲寅句中無子丑。”

니 명(命)을 아는 군자로 하여금 책을 펼쳐 보는데 편리하도록 하였다.⁴⁷⁾

제13 관귀류(官貴類)는 천을귀인(天乙貴人)·천덕귀인(天德貴人)·월덕귀인(月德貴人)·월합(月合)·월공(月空)·식신(食神)·정인(正印)·양인(羊刃)·삼형(三刑)·고신(孤辰)·과수(寡宿)·천라(天羅)·지망(地網)·반음(返吟)·복음(伏吟)·공망(空亡) 등 명리에서 자주 활용되는 길신흉살(吉神凶殺)과 십성(十星)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천덕귀인·월덕귀인·월합·월공은 제5 합류에서도 나오는데 <표 3>에서 정리한 바와 같다.

제14 행운류(行運類)는 대운(大運)과 소운(小運)을 행하는 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생년월일시가 각각 주관하는 연령에 대해 설명하며⁴⁸⁾, 명대(明代)의 명리서인 『연해자평』과 『삼명통회』에도 실려 있는 조미론(造微論)을 수록하였다.



<그림 2> 『원천강』 권10 명격류(命格類) (규장각 소장본)

천간은 녹(祿)의 근본이 되어 일생동안 직위의 높고 낮음을 정한다. 지지는 명(命)의 기초가 되어 삼한(三限) 동안 수명의 처음과 마지막을 펼친다. 생년(生年)은 주(主)가 되고 월건(月建)은 묘(苗)가 되고 일(日)은 경영을 주관하여 중년의 길흉을 결단하며 시(時)는 결과가 되어 만년의 영고를 결정한다.⁴⁹⁾

제15 명격류(命格類)는 천지덕합(天地德合)·군신회경(君臣慶會)·삼합취집(三合聚集)·오행구족(五行俱足)·인종포승(引從包承)·오자연주(五字連珠) 등 20가지 귀격(貴格)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 귀격들은 공망·사·절·상충·형·파를 꺼리는데 복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온전하게 1가지 격에 파극이 없으면 주현(州縣)에서 선종(善終)하고, 2가지 격에 파극이 없으면 경관(京官)으로 선종하고(…) 9가지 격에 파극이 없으면 벼슬이 양부(兩府)에 이르고, 10가지 격에 파극이 없으면 벼슬이 삼공(三公)에 이른다.”⁵⁰⁾고 하였다.

조선조 음악과 명과학의 기본 전공과목이자 필수 시험과목인 『원천강(오성삼명지남)』의 내용은 매우 다양하고 많으나, 학술논문의 성격상 그 구성과 주요 내용에 대해서만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47) 위의 책, <詩斷類>, “大凡看命先看大勢格局如何, 入格之命如將帥, 刑殺如兵卒, 指麾喝咄惟命是從. (….) 今搜出諸家斷五行吉凶禍福, 詩訣計二百餘首列爲兩卷, 俾知命君子便於披覽云.”
48) 위의 책, <行運類>, “<年月日時所主> 年是 15세까지 주관하고 月은 30세까지 주관하고 日은 45세까지 주관하고 時는 늙을 때까지 이른다. 年是 자신이 되고 月은 형제가 되고 日은 처첩이 되고 時는 자손이 되고 胎는 부모가 된다(年管十五, 月管三十, 日管四十五, 時直至老. 年爲己身, 月爲兄弟, 日爲妻妾, 時爲子孫, 胎爲父母).”
49) 위의 책, <行運類>, “<造微論> 干爲祿本, 定一生職位高低. 支作命基, 布三限壽元終始. 年生爲主, 月建爲苗. 日管經營, 斷中年之休咎. 時爲結果, 定晚歲之榮枯.”
50) 위의 책, <命格類>, “右二十般貴格忌空亡死絕相衝刑則減福也. 全一路無破善終州縣, 全二路無破善終京官, (….) 全九路無破官至兩府, 全十路無破官至三公.”

IV. 『원천강』의 지명(知命)체계 특징

앞서 살펴본 『원천강』의 구성과 주요 내용을 비롯하여 함축된 다양한 내용을 바탕으로 『원천강』에 나타나는 지명체계로서의 명리 인식과 그 특징들을 분석해보면 크게 5가지 범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는 납음오행(納音五行)과 태원(胎元), 각종 다양한 귀길신(貴吉神)과 흉관살(凶關殺)을 중요하게 활용하는 고법명리의 특징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법(新法)명리에서는 거의 활용하지 않는 납음오행을 많이 활용한다. 10세기 중반(오대 말-북송 초) 서자평을 기점으로 납음오행과 신살, 연주(年柱)를 위주로 간명하는 고법(古法)명리에서 일간(日干)을 중심으로 음양의 소식(消息)과 오행의 생극제화(生剋制化)와 격국·용신·지장간 등을 활용해서 명(命)을 추론하는 신법(자평)명리로 전환되었다. 납음오행의 활용은 고법명리의 매우 주요한 특징이다. 『원천강』은 납음오행을 <표 4>와 같이 정리하고 있다.

<표 5> 육십갑자 납음오행

간지	납음오행	간지	납음오행	간지	납음오행	간지	납음오행	간지	납음오행
甲子 乙丑	海中金 해중금	丙寅 丁卯	爐中火 노중화	戊辰 己巳	大林木 대림목	庚午 辛未	路傍土 노방토	壬申 癸酉	劍鋒金 검봉금
甲戌 乙亥	山頭火 산두화	丙子 丁丑	澗下水 간하수	戊寅 己卯	城頭土 성두토	庚辰 辛巳	白鐵金 백납금	壬午 癸未	楊柳木 양류목
甲申 乙酉	泉中水 천중수	丙戌 丁亥	屋上土 옥상토	戊子 己丑	霹靂火 벽력화	庚寅 辛卯	松柏木 송백목	壬辰 癸巳	長流水 장류수
甲午 乙未	沙中金 사중금	丙申 丁酉	山下火 산하화	戊戌 己亥	平地木 평지목	庚子 辛丑	壁上土 벽상토	壬寅 癸卯	金薄金 금박금
甲辰 乙巳	覆燈火 복등화	丙午 丁未	天河水 천하수	戊申 己酉	大驛土 대역토	庚戌 辛亥	釵釧金 차천금	壬子 癸丑	桑柘木 상자목
甲寅 乙卯	大溪水 대계수	丙辰 丁巳	沙中土 사중토	戊午 己未	天上火 천상화	庚申 辛酉	石榴木 석류목	壬戌 癸亥	大海水 대해수

둘째, 사주(四柱)가 아니라 연월일시태(年月日時胎)의 오주(五柱)체계를 바탕으로 한다. “가령 甲子년 4월 戊申일寅시생이면 甲己는 丙寅에서 시작하니 [생월인] 4월은 己巳월이고, 또 戊癸는 壬子에서 시작하니 [생시인] 寅은 甲寅시가 된다. 이렇게 사주가 구성되면 수태월이 어떤지를 보는데 남녀를 불문하고 (...) 가령 己巳월이면 [아홉 달 전인51] 庚申이 태원(胎元)이다. 이렇게 연월일시태가 오명(五命)이 된다.”52)고 하였다.

51) 생월간+1, 생월지+3이면 생월의 9개월 전인 태원(입태월)이 계산된다. 가령 생월이 己巳이면 생월간 己 바로 다음 천간 庚이 태월간, 생월지 巳 3번째 앞 지지 申이 태월지가 된다. 따라서 입태월은 庚申이고 60갑자 순서상 생월의 9번째 전이다. 庚申(태원) - 辛酉 - 壬戌 - 癸亥 - 甲子 - 乙丑 - 丙寅 - 丁卯 - 戊辰 - 己巳(생월)

즉 『원천강』은 생년월일시의 사주 외에 입태월(入胎月)인 태원을 더하여 명을 추론하였다. 태원은 잉태한 달을 말하며 잉태될 때의 기후를 보는 것이다.

사주명리의 발전 과정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고법명리이다. 고법명리는 삼명학(三命學)이라고도 하는데, 생년의 천간을 록(祿), 생년의 지지를 명(命), 연주의 납음오행을 신(身)이라 하여 삼명이라 한다.⁵³⁾ 고법명리에서는 신(身)을 위주로 하며, 명(命)과 신(身)을 기준으로 신살을 취하고, 태원과 월주·일주·시주의 순서대로 신(身)을 대입시켜 그 왕쇠강약을 정해 간명하였다. 따라서 고법명리에서 사주는 태·월·일·시의 네 기둥을 가리키는 말이었다.⁵⁴⁾ 지금의 연주 대신에 태원이 들어갔던 것이다. 하지만 고법명리는 생년을 삼명(록·명·신)의 근거로 삼아 태원과 생월일시를 함께 고려했으므로, 고법명리는 엄밀히 말하면 사주가 아니라 ‘오주’라고 할 수 있는데⁵⁵⁾ 『원천강』도 이와 유사한 오주체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셋째, 오행의 왕상사수휴(旺相死囚休) 중시와 12운성(運星)의 활용이다. “오행이 그 계절(時)을 만나면 왕(旺)이고, (계절이 오행을) 생하면 상(相), 극하면 사(死)이며, (오행이 계절을) 생하면 휴(休), 극하면 수(囚)이다.”⁵⁶⁾고 하면서 “명(命) 중에서 왕상(旺相)을 많이 두는 자는 길하고, 수휴사(囚休死)를 많이 두는 자는 그 복이 줄어든다.”⁵⁷⁾고 하였다. 그리고 오행의 왕상사수휴가 보다 세분화된 장생(長生)·목욕(沐浴)·관대(冠帶)·임관(臨官)·제왕(帝旺)·쇠(衰)·병(病)·사(死)·장묘(葬墓)·포절(胞絕)·태(胎)·양(養) 등 12단계의 12운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표 6〉 오행의 왕상사수휴

	春	夏	秋	冬
旺	木	火	金	水
相	火	土	水	木
死	土	金	木	火
囚	金	水	火	土
休	水	木	土	金

12운성은 포태법(胞胎法)이라고도 한다.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은 어머니 자궁(씨앗)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성숙해서 왕성하게 활동하다가 결국에는 병들고 죽게 된다. 생로병사·영고성쇠하는 인생행로에 비유하여 천간을 각 지지에 대입한 것이다. 12운성은 오행의 생극제화가 아니라 기세(氣勢)의 순환변화를 다루는 것이며, 이어서 살펴볼 음양순행·동생동사, 水土동궁의 관점과도 연관이 된다.

넷째, 음양순행(陰陽順行)·동생동사(同生同死), 水土동궁(同宮)의 관점을 취한다. 대부분의 명리 문헌이 12운성의 운행에서 양순음역·양생음사·음생양사의 관점을 취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원천강』은 음양순행·음양동생동사의 관점을 취하고 있다.⁵⁸⁾

52) 『袁天綱五星三命指南』, 〈貴神類〉, “假如甲子年四月戊申日寅時生命, 甲己通起丙寅, 至四月是己巳月, 又戊申日, 戊癸通起壬子, 至寅是甲寅時. 四柱既成, 却看是何受胎, 其法不問男女(…) 如己巳月(…) 即庚申是胎也.(…) 年月日時胎爲之五命.”

53) 『李虛中命書』 권중, “원명이 三元으로써 판가름된다는 것은 [생년] 천간의 록, 지지의 명, 간지 납음의 신이 각기 그 쇠왕의 자리를 어떻게 차지하는가를 말함이다(元命勝負三元者, 干祿、支命、納音身, 各分衰旺之地).”

54) 『李虛中命書』 권중, “四柱者, 胎月日時.”

55) 김만태, 앞의 논문, 2010, 49쪽.

56) 위의 책, 〈發端類〉, “五行當時者旺, 所生者相, 所克者死, 生我者休, 克我者囚.”

57) 위의 책, 〈發端類〉, “凡命中置旺相多者則吉, 置囚休死多者則減其福也.”

58) 12운성의 운행(運行)에서 12지지(地支)를 양간(陽干: 甲丙戊庚壬)은 순행하고, 음간(陰干: 乙丁己辛癸)은 역행하여 ‘포(절)

『원천강』과 같은 관점의 문헌은 ① 중국 전국시대의 낙록자가 지은 것으로 전해지는 『낙록자부』에 오대 말-북송 초의 서자평이 주석을 달았다고 알려진 『낙록자삼명소식부주』 ② 1600년대 중반 청대 초의 명리학자 진소암의 저술 『명리약언』⁵⁹⁾ ③ 1840년대 후반 청대의 명리학자 임철초가 명대 초의 명리서인 『적천수』에 자신의 새로운 주석과 실증 사례를 보태어 저술한 『적천수천미』⁶⁰⁾ 등이다.

12운성의 운용과 관련하여 火土동궁과 水土동궁의 관점이 대립하고 있는데⁶¹⁾, 『원천강』은 〈五行發用〉에서 “水土는 申에서 생(生)하며 酉에서 목욕(沐浴)하고 (…) 子에서 제왕(帝旺)이며 丑에서 쇠(衰)하고 (…) 辰에서 장(葬)하며 巳에서 포(胞)하고,”⁶²⁾라면서 水土동궁의 입장을 주로 취하고 있다.

〈표 7〉 음양순행 · 동생동사 · 수토동궁 관점의 12운성

	甲	乙	丙	丁	戊	己	庚	辛	壬	癸
胞絕	申	申	亥	亥	巳	巳	寅	寅	巳	巳
胎	酉	酉	子	子	午	午	卯	卯	午	午
養	戌	戌	丑	丑	未	未	辰	辰	未	未
長生	亥	亥	寅	寅	申	申	巳	巳	申	申
沐浴	子	子	卯	卯	酉	酉	午	午	酉	酉
冠帶	丑	丑	辰	辰	戌	戌	未	未	戌	戌
臨官	寅	寅	巳	巳	亥	亥	申	申	亥	亥
帝旺	卯	卯	午	午	子	子	酉	酉	子	子
衰	辰	辰	未	未	丑	丑	戌	戌	丑	丑
病	巳	巳	申	申	寅	寅	亥	亥	寅	寅
死	午	午	酉	酉	卯	卯	子	子	卯	卯
葬墓	未	未	戌	戌	辰	辰	丑	丑	辰	辰

→태→양→장생→목욕……’의 순으로 나아가는 것을 ‘양순음역(陽順陰逆)’, 음양간 모두 동일하게 순행하여 나아가는 것을 ‘음양순행(陰陽順行)’이라 한다. ‘양순음역’이면 양간이 생(生)하는 지지에서 음간은 사(死)하고, 음간이 생하는 지지에서 양간은 사하므로 ‘양생음사(陽生陰死) · 음생양사(陰生陽死)’라 한다. ‘음양순행’이면 음양간 모두 동일한 지지에서 생하고 사하므로 ‘음양동생동사(陰陽同生同死)’라 한다.

- 59) 陳素庵 지음, 韋千里선집, 앞의 책, 76쪽, 〈十干生旺墓等位論〉, “甲乙은 하나의 木으로서 陰陽이 나뉘는 뿐이며 死木과 活木의 둘로 나눌 수는 없다. 이미 하나의 木이므로 같은 곳에서 살고 같은 곳에서 죽는다(甲乙一木, 而分陰陽, 非可以死木活木岐而二之, 既爲一木, 同生同死).”
- 60) 劉伯溫 지음, 任鐵樵 증주, 袁樹珊 찬집, 『滴天髓闡微』, 臺北: 武陵出版有限公司, 1997, 54쪽, 〈干支總論〉, “이로 미뤄보건대 陰陽은 同生하고 同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陰陽을 順逆으로 고정시켜 놓고 陽이 생하는 곳에서 陰이 死하고, 陰이 생하는 곳에서 陽이 死하는 것으로 命을 추론한다면 큰 잘못이다(由此觀之, 陰陽同生同死可知也. 若執定陰陽順逆, 而以陽生陰死, 陰生陽死論命, 則大謬矣).”
- 61) 12운성의 운용(運用)에서 丙과 戊, 丁과 己를 동일하게 취용하는 것을 ‘화토동궁(火土同宮)’, 壬과 戊, 癸와 己를 동일하게 취용하는 것을 ‘수토동궁(水土同宮)’이라 한다.
- 62) 『袁天綱五星三命指南』, 〈發端類〉, “水土生申, 沐浴酉(…) 帝旺子, 衰丑(…) 葬辰, 胞巳,”

다만 십간록·금여록·천주록에서는 ‘丙戌祿巳’, ‘丁巳祿午’라 하여 火土동궁의 입장도 보인다. 참고로 보자면 『연해자평』과 『삼명통회』·『자평진전』은 화토동궁, 『옥조정진경』과 『이허증명서』·『낙록자부주』·『낙록자삼명소식부주』·『명리정중』 등은 수토동궁의 관점을 취하고 있다.⁶³⁾

다섯째, 각종 다양한 신살(神殺)들을 매우 중시한다. 세분해서 살펴보면 ① 12신살(神殺)을 활용한다. 예를 들면 육해(六害)는 “역마 앞의 육해는 그 이름을 감당할 수 없는데 월(月)상에서 만나면 형제를 손상한다. 부모의 태(胎) 중에서는 (부모를) 먼저 극하는 것을 보고 일시(日時)에서 만나면 처자가 다치는 것을 더욱 막아야 한다. (...)”⁶⁴⁾고 하였다. 화개(華蓋)는 “충명함으로 길성(吉星)이라 하니 대개 책을 잡아야 마땅하며 주로 과거 급제하여 명성을 얻는다. 다시 천덕귀인을 만나고 관인(官印)과 함께 하면 지위가 공경(公卿)에 이르며 현명한 군주를 보좌한다. (...)”⁶⁵⁾고 하였다. 겁살(劫殺)은 “재앙이 되니 가히 당해 낼 수 없으며 명리(名利)의 시험장에서 공연히 분주하다. 모름지기 조업(祖業)이 전부 쇠망하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처자식인들 여져 오래가겠는가? (...)”⁶⁶⁾라고 하였다.

12운성과 마찬가지로 12신살도 오행의 왕상사수휴와 지지(地支)의 삼합론(三合論)을 바탕으로 한다. 다만 12운성이 천간대 지지의 변화라고 한다면 12신살은 지지대 지지가 만나서 사람의 운명에 길흉으로 나타나는 작용이다. 지지가 변화한다는 것은 시간이 흘러간다는 개념이며 계절이 변화한다는 의미이다. 이에 따라 그 작용이나 결과도 당연히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⁶⁷⁾

② 각종 귀인(貴人)·녹신(祿神)을 중시한다. 이는 존귀함을 의미하는 관(官)을 중시하는 인식과 연관된다. 귀인으로는 천을귀인·복성귀인·천관귀인·문성귀인·태극귀신·산하절도귀·십간관귀·삼기귀·협과귀·천덕귀인·월덕귀인 등이 언급된다. 예를 들면 천을귀인은 “甲戌庚은 소·영丑未이고, 乙己는 쥐·원숭이子申지방이고, 丙丁은 돼지·닭亥酉자리이고, 壬癸는 뱀·토끼巳卯에 감춰 있고, 여섯 수는 말·호랑이午·寅를 만나면 모두 귀인방(貴人方)이다. 명(命) 중에 이 같이 만나면 만드시 자미랑(紫薇郎)⁶⁸⁾이 된다.”⁶⁹⁾고 하였다. 삼기귀는 “천상(天上)삼기는 甲戌庚이고 지하(地下)삼기는 乙丙丁이다. 만약 인명이 삼기귀를 만나면 삼원급제(三元及第)⁷⁰⁾하며 못 영재들 중에서도 으뜸이다.”⁷¹⁾고 하였다.

녹신으로는 십간록·금여록·천주록(식신록)·천록·비록·명위록·생성록·협록·공록·교록·암록·조원록·비등록·연주록 등을 언급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비등록은 “甲申·甲子·甲辰생 사람이 寅을 보는 것인데, 甲의 祿이 寅에 있고 申子辰의 역마도 寅에 있다. 庚寅·庚午·庚戌이 申을 보는 것인데, 庚의 祿이

63) 김만태, 「중국 명리원전 『낙록자삼명소식부주』 고찰」, 『동양문화연구』 24, 영산대학교 동양문화연구원, 2016, 336~337쪽.

64) 위의 책, 〈詩斷類〉, “定馬前六害, 一名天傷殺: 馬前六害不堪名, 月上逢之損弟兄. 父母胎中先見克, 日時妻子更防刑.(...)”

65) 위의 책, 〈詩斷類〉, “定華蓋: 華蓋聰明號吉星, 大宜執卷主科名. 更逢天德同官印, 位至公卿佐聖明.(...)”

66) 위의 책, 〈詩斷類〉, “劫殺爲災不可當, 徒然奔走利名場. 鄉防祖業消亡盡, 妻子如何得久長.(...)”

67) 이영무, 「十二神殺에 관한 研究—命理學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동양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40~41쪽 참고.

68) 당대(唐代)에 中書舍人(中書省에서 황제의 조칙문을 맡은 관원)의 별칭.

69) 『袁天綱五星三命指南』, 〈貴神類〉, “甲戌庚牛羊, 乙巳鼠猴鄉, 丙丁猪雞位, 壬癸蛇兔藏, 六辛逢馬虎, 盡是貴人方, 命中如遇者, 定作紫薇郎.”

70) 향시(鄉試), 회시(會試), 전시(殿試)를 모두 수석으로 급제.

71) 위의 책, 〈貴神類〉, “天上三奇甲戌庚, 地下三奇乙丙丁, 若人命值三奇貴, 三元及第冠群英.”

申에 있고 寅午戌의 역마도 申에 있다. 이 여섯 자리를 녹마동과(祿馬同科)라고 하는데 명주(命主)는 크게 존귀하고 명성이 높다.”⁷²⁾고 하였다.

③ 관살(關殺)·공망(空亡) 등을 기피하는데 역시 부귀함을 의미하는 재관(財官)을 중시하는 인식과 관련된다. 예를 들면 귀문관(鬼門關)의 경우 “자는酉를 싫어하고 午는 丑를 싫어한다. 寅과 未, 申과 卯는 반드시 편안하지 않다. 亥는 辰을 두려워하고 戌은 巳를 두려워한다. 옛 현인이 ‘귀문관’이라는 호칭을 세웠는데 인명의 생시(生時)에 만약 이를 범하면 6월 6일 6월 6일 길에서 추위에 떠난다.”⁷³⁾고 하였다.

십대공망(十大空亡)의 경우 “甲辰·乙巳·壬申·丙申·丁亥·庚辰·戊戌·癸亥·辛巳·己丑 모두 10개 좌신(坐神)이 온다. 국가에서 전쟁을 일으킬 때 반드시 크게 꺼리고 용과 뱀이 구덩이에서 나와도 펼칠 수가 없다. 인명이 만약 이런 날을 만나면 창고의 금은(金銀)은 먼지로 변한다.”⁷⁴⁾고 하였다.

총괄하면, 신법명리에서는 일간(日干)과 월령(月令)을 위주로 사주를 해석하고 격국(格局)과 용신(用神)을 중시하며 인원(人元)으로서 지장간(支藏干)을 활용한다. 반면 신법(자평)명리 이전의 고법명리에서는 태원과 각종 귀길신·흉관살을 활용하고, 지장간 대신 납음오행을 인원으로 중요하게 활용한다. 『원천강』은 일간과 월령·격국·용신·지장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며, 태원과 소운·명궁, 각종 신살과 납음오행의 중시와 활용 등 사주명리의 발전 과정에서 먼저 등장하는 고법명리의 전형적인 지명체계 특징을 갖고 있다.

V. 맺음말

『원천강』은 그 저술시기와 저술자가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여러 많은 명리서들 중에서도 유일하게 음양과 명과학의 주요 전문서이자 필수과목으로 조선조 내내 채택되었다. 『원천강』은 1430년(세종 12) 명과학의 취재 과목으로 규정되고, 1466년(세조 12) 『경국대전』 「예전」에서 명과학의 과거시험 과목으로 규정되어 조선말까지 약 48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명과학 전공자들의 주요 본업서이자 명과학의 필수 시험과목으로 활용되었다. 『원천강』은 7세기 초중반 당대에 술수가로 활동했던 ‘袁天綱’이란 인물의 이름과도 일치한다. 그러나 원천강의 이름에 가탁해서 퍼낸, 명리학에 조예가 있는 어느 술수가의 저술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본의 맨 처음 목록면에는 ‘宣賜之記, 安鼎福印, 心齋, 李王家圖書之章’라는 장서인이 찍혀 있다. ‘宣賜之記’는 임금의 하사하는 물품에 찍는 도장이므로 임금의 명으로 『원천강』을 발행하여 관원들에게 하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관상감의 관서지인 『서운관지』에도 『원천강』에 대한 기록이 나온다. 이런 점들로 미뤄보아 『원천강』은 조선시대 국가에서 직접 관장하는 서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72) 위의 책, 〈祿神類〉, “如甲申甲子甲辰生人見寅是, 甲祿在寅, 申子辰馬在寅. 庚寅庚午庚戌見申是, 庚祿在申, 寅午戌馬居申. 只此六位謂之祿馬同科, 主大貴顯.”

73) 위의 책, 〈關殺類〉, “子嫌酉上午嫌丑, 寅未申卯不須安. 亥怕辰戌戌怕巳, 古賢立號鬼門關. 人命生時若犯此, 六月炎天也道寒.”

74) 위의 책, 〈空亡類〉, “甲辰乙巳與壬申, 丙申丁亥及庚辰, 戊戌癸亥加辛巳, 己丑都來十坐神. 國家用兵須大忌, 龍蛇出穴不能伸. 人命若選值此日, 倉庫金銀化作塵.”

『원천강』의 본래 명칭은 『원천강오성삼명지남』으로 서문과 발문이 없으며, 10권이고 발단류부터 명격류까지 15가지로 분류하여 그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원천강』은 신법명리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납음오행을 많이 활용한다. 그리고 생년월일시의 사주 외에 태원(입태월)을 더하여 오주체계로써 사람의 명을 추론하였다. 12신살을 활용하였는데 12운성과 마찬가지로 12신살도 오행의 왕상사수휴와 지지의 삼합론을 바탕으로 한다. 각종 귀인·녹신을 중시하고 관살·공망을 기피하였는데 이는 부귀를 의미하는 재관(財官)을 중시하는 인식과 연관된다.

『원천강』은 오행의 왕상사수휴를 중시하고 12운성을 활용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명리 문헌들이 12운성의 운행에서 양순음역·양생음사·음생양사의 관점을 취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원천강』은 음양순행·음양동생동사의 관점을 취하였다. 또한 12운성의 운용과 관련하여 火土동궁과 水土동궁의 관점이 대립하고 있는데 『원천강』은 水土동궁의 관점을 취하였다.

『원천강』에 함축된 주요 내용들은 고법명리의 지명체계 특징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즉 일간과 월령을 위주로 격국과 용신을 중시하고 지장간을 활용해서 간명하는 신법명리의 특징은 보이지 않는 대신, 납음오행과 태원·소운·명궁·귀길신·흉관살 등을 지명에 중요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원천강』은 고법명리의 전형(典型)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참고문헌〉

『經國大典』, 『舊唐書』, 『書雲觀志』, 『世祖實錄』, 『世宗實錄』, 『新刊指南臺司袁天綱先生五星三命大全』, 『袁天綱五星三命指南』(국립중앙도서관,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본), 『正祖實錄』, 『直齋書錄解題』, 『欽定四庫全書總目』

구중희, 『한국명리학의 역사적 연구』, 국학자료원, 2013.

김만태, 「명리학의 한국적 수용 및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동양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김만태, 「조선 전기 이전 사주명리의 유입 과정에 대한 고찰」, 『한국문화』 52,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0, 159~187쪽.

김만태, 「조선조 命課學 試取書 『徐子平』에 관한 연구」, 『장서각』 28, 한국학중앙연구원, 2012, 266~293쪽.

김만태, 「중국 명리원전 『낙록자삼명소식부주』 고찰」, 『동양문화연구』 24, 영산대학교 동양문화연구원, 2016, 315~342쪽.

김만태, 『한국 사주명리의 활용양상과 인식체계』, 안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김인규, 「『원천강오성삼명지남』의 명리이론 연구: 五行發用과 貴神類를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이수동, 「조선말기 명과학 시험교재 『선택기요』 연구」, 『장서각』 32, 한국학중앙연구원, 2014, 108~135쪽.

- 이수동, 「조선시대 명과학 시험교재 『범위수』의 이론체계와 추명방식 고찰」,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58,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13, 315~348쪽.
- 이수동, 「조선시대 음양과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 이영무, 「十二神殺에 관한 研究—命理學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동양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조규문, 「천강 원수성의 명리사상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 萬民英, 『三命通會』, 臺北: 武陵出版有限公司, 1996.
- 徐升 편저, 『淵海子平評註』, 臺北: 武陵出版有限公司, 1996.
- 沈孝瞻 원저, 徐樂吾 평주, 『子平眞詮評註』, 臺北: 武陵出版有限公司, 1999.
- 王力, 『中国古代文化常识』, 南京: 江苏教育出版社, 2005.
- 劉國忠, 『唐宋時期命理文獻初探』, 哈尔滨: 黑龍江人民出版社, 2009.
- 劉伯溫 저, 任鐵樵 증주, 袁樹珊 찬집, 『滴天髓闡微』, 臺北: 武陵出版有限公司, 1997.
- 張楠, 『標點命理正宗』, 臺北: 武陵出版有限公司, 2001.
- 張果 원저, 歐陽彥 저, 『果老星宗』(下部 七政四餘), 西安: 陝西師範大學出版社, 2010.
- 張新智, 「子平學之理論研究」, 臺北: 國立政治大學 中國文學研究所 博士論文, 2002.
- 陳素庵 저, 韋千里 선집, 『命理約言』, 香港: 上海印書館, 1987.
- 鄒文耀, 『子平命學考證』, 臺北: 瑞成書局, 1982.
- 『珞珠子賦注』, 文淵閣 四庫全書 電子版, 香港: 迪志文化出版有限公司, 1999.
- 『珞珠子三命消息賦注』, 文淵閣 四庫全書 電子版, 香港: 迪志文化出版有限公司, 1999.
- 『玉照定眞經』, 文淵閣 四庫全書 電子版, 香港: 迪志文化出版有限公司, 1999.
- 『李虛中命書』, 文淵閣 四庫全書 電子版, 香港: 迪志文化出版有限公司, 1999.

* 이 논문은 2019년 8월 23일에 투고되어,
2019년 9월 9일까지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2019년 10월 27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9년 10월 28일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되었음.

Abstract

Study on *Woncheongang*(袁天綱) as the Required Subject of Myeonggwahak(命課學), Yin-yang Science in the Joseon Dynasty Period

Kim, Mantae*

Woncheongang(袁天綱) was designated as the basic exam subject of Myeonggwahak(命課學) in 1430(Sejong's reign 12th year), and was nominated as the state exam subject of Myeonggwahak in *Gyeonggukdaejeon Yejeon* in 1466(Sejo's reign 12th year), and was utilized as the basic textbook for Myeonggwahak majors and the state exam of Myeonggwahak during 480 years until the late Joseon Dynasty. The period of publication and the writer of *Woncheongang* is not clear. The title of *Woncheongang* coincided with the name of 'Woncheongang(袁天綱)', who acted as the strategist during Tang Dynasty during the early and mid 7th century. However, that probably was a private publication assuming Woncheongang's name.

On the first page of the booklet of the Korean Studies Central Research Institute's Jangheokgak, a collection called '宣賜之記, 安鼎福印, 心齋, 李王家圖書之章' is stamped. '宣賜之記' is a stamp that is taken on the goods that the king gives up. Therefore, it is presumed that *Woncheongang* was given to officials after issued by the king's order. The original name of *Woncheongang* is *Woncheongang-oseong-sammyeong-jinam*(袁天綱五星三命指南), which has no preface and epilogue, composed of 10 books, including the contents by classifying into 15 parts from introduction to Myounggyeokryu.

Myeongli cognition and characteristic included in *Woncheongang* can be divided into five categories, imply ① utilization of Nabeumohaeng(納音五行) ② Oju(五柱) system of Year · month · date · time · pregnancy(年月日時胎) ③ high consideration of Ohaeng(五行) Wangsangsuhyu(旺相死囚休), utilization of Sibiwoonseong(十二運星) ④ viewpoint on progression · Dongsaengdongsa(同生同死) of Yinyang(陰陽) and Sutodonggung(水土同宮) ⑤ high consideration of various Sinsal(神殺, 12 Sinsal(神殺), Gwiyin(貴人) · Noksin(祿神), Gwansal(關殺) · Gongmang(空亡)}. Most of them, Nabeumohaeng(納音五行) · Taewon(胎元), various precious Gilsin(吉神) and ominous Gwansal(關殺) show recognition and characteristics of old law Myeongli science.

* Professor, Dept. of Future Anticipation, Dongbang Culture Graduate University

[Key Words] Yin-yang science, Myeonggwahak, *Woncheongang*, *Woncheongang-oseong-sammyeong-jinam*, Saju myeongli(a system of divination which predicts the fate of man using the sexagenary cycle of the time, day, month, and year of the birth of a person), Myeongli science(four pillars of destiny science)